

새로나온 책



▲전등록4=문재현 법사(대한불교정맥진흥회장)가 번역한 이 책은 전5권짜리 '바로보인 전등록'의 네 번째 권. 여기에서는 <경덕전등록> 30권 중 21권부터 25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입체선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불조정맥(佛正脈)도 밝혀 놓았다. 어려운 부분은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도왔다. <바로보인, 1만8천원>



▲그리운 집=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마음을 다친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살아간다.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지어진 집을 향한 영원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김초혜 시인은 읊조린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살아가야 할 이 육신의 수고로움 속에 있다고 말한다. 즐거움과 괴로움, 집착과 분노를 아는 지혜가 삶의 경계임을 노래한다. <작가정신, 5천원>



▲청소년을 위한 에세이로 읽는 채근담=채근담은 중국 명나라 홍자성이 지은 책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비유해서 쓴 글이다. 여기에 실린 3백16가지의 이야기들은 부귀와 공명이 헛됨을 역설하고 진정한 자아의 가치를 일깨운다. 설명대신 재미있는 우화를 수록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했다. <일출, 6천5백원>



▲사군자=사군자는 고고한 선비정신을 나타낸다. 그리고 거기에는 탈속의 고고함과 선적 여유가 깃들여 있다. 저자인 문인화가 유수종씨(한국 현대문인회 연구회장)는 사군자말로 선(線)의 예술이자 선(禪)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초심자라도 도본과 부록의 설명을 따라가며 익히다보면 쉽게 사군자를 배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에서원, 12만원>

# '불성의 자각' 자기반성에서

## 도서출판 여시아문 '불성이란 무엇인가'

### 불성의 어원과 의미 '분석' 여래장사상 상세히 설명 모든 생물의 존엄성 강조

동경대 다카사키 교수의 글 전치수씨 우리말로 옮겨

대부분의 불자들은 '불성'이라는 말을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기본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해는 불성이 의미하는 뜻의 보편성을 따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분명 '부처가 될 수 없는 중생도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그렇다면 불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과연 일체중생에게 불성은 있는 것인가.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문화·학술권의 첫 번째 권인 <불성이란 무엇인가>는 불성이라는 말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여러 경전을 통해 이같은 의문을 풀고 있다. 학술서이지 만 불성의 의미를 좇으면서 깨달음의 길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시행서로도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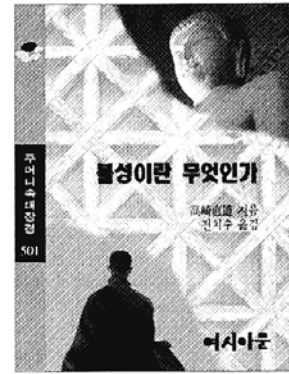
일본의 불교학자 다카사키(高峰直道·동경대 명예교수)가 불성에 대해 강의했거나 잡지 등에 발표한 원고들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을 전치수씨(전 동국대 강사)가 우리말로 옮겼다.

기적으로 먼저이기 때문에 여래의 본성이라는 여래장을 풀이하여 불성으로 표현하였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불성의 출발은 어디일까. 저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불성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작이라고 말한다. 즉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살행을 구현하지 않는 한 불성이 있다고 해도 없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불성의 자각이란 끊임없는 자기 반성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불성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 제1장에서는 불성의 어원과 의미, 깨달음과 자성정심 등의 수많은 개념에 대한 설명을 끌어들이고 있다.

제2장은 부처님과 같은 말인 '여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보성론(寶性論)>이라는 논전을 비롯해 <여래장경> <열반경> <승만경> 등



몇몇 대승경전을 통해 여래장 사상을 밝혀 놓았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불성과 여래장에 대한 현대적 해석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을 제시하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이르기까지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마음 안으로부터 발산하는 것을 저자는 불성이라고 불렀다고 결론을 맺는다. 값 4천5백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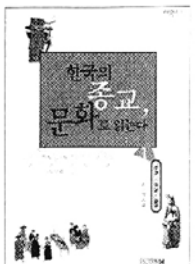
## "한국의 종교문화 이해 불교를 알아야 가능"

최준식교수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최준식 교수(이화여대 한국학)가 펴낸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세계질 권)는 불교가 한국의 종교문화를 결정짓는 근본적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또 무교와 불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다.

이 책은 먼저 불교를 세계 종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비로운 모습과 이성적인 가르침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민족에 자리잡은 불교는 수준 높은 교리와 종교적 실천을 행함으로써 한국종교문화의 근간을 이루게 됐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달리 종교적 기능이 약한 유교나, 너무 개별화되어 있고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한 샤머니즘(무교)보다 불교에서 우리 조상들이 종교적 위안을 찾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의지처를 제공하고 위안감을 주는 중요한 기능 외에도 자비와 너그러운 사랑을 가르쳐왔던 불교가 존엄성을 인정하고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마음 안으로부터 발산하는 것을 저자는 불성이라고 불렀다고 결론을 맺는다. 값 1만2천원.

한명우 기자



## 성불의 길은 불퇴전의 신심

보광스님 '부처님을 친견하는 삼매경'



<반주삼매경>은 <현재제불신재전집삼매경>이라고도 하며, '현재에 제불이 모두 앞에 나타나시는 삼매경'을 의미한다. 즉 부처님의 모습을 친견하는 방법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다.

중국 후한 때 지루가참(支婁迦讖)이 한역한 것을 보광스님(동국대 1백주년기념사업본부장)이 우리말로 옮긴 <부처님을 친견하는 삼매경>(대각출판부)은 동국대경전에서 펴낸 한글대장경 <반주삼매경>의 내용을 보완하고 주석을 붙여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은 지루가참 한역본 3권 16품을 모두 번역하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그 뜻을 더욱 쉽게 풀이했다. 후기에 <반주삼매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간략히 서술해 놓음으로써 이 경의 원 뜻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다. <반주삼매경>은 불퇴전의 신심을 가지게 되어 극락에 왕생해 성불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값 1만원. 한명우 기자

## 관음신앙의 모든것 쉽게 해설

이동형씨 번역 '관세음보문품 강의'



중국의 원영스님이 '관세음보살보문품'을 강의한 것을 엮은 <관세음보문품 강의>(지영사)는 올바른 관음신앙의 의미를 알게 해 준다. 원영스님(1878~1953)은 임제종의 40대 조사로 일컬어지는 스님으로 중국불교 부흥에 힘썼다. 옮긴이는 이동형씨.

'관세음보살보문품'은 <법화경> 제25품의 이름으로,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위신력을 설명해 놓고 있다. 이 책에서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의 원문과 간단한 해설을 실고 원영스님의 강의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내용과 관련해 전해지는 증언부분을 넣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값 9천원. 한명우 기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생환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3	법사로 배우는 불교	이 재 일	여시아문
4	화두, 해동과 세인스피어	김 용 옥	통나무
5	가슴을 찌르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6	불교신앙의 추춌들	우 통	효림
7	신도포교지침서(하)	성 일	불광
8	불교입문	조계종연구원	조계종출판사
9	그냥 잘 수 없는 길	이 도 원	불광
10	100문100답(불·보살·신승론)	공명·고광	대원정사

구입문의:(02)737-0695

## 인연 닿는대로 발길 닿는대로 남산스님 지음

### 자유는 선과 악의 갈등 겪지 않는 것



얼마전 <과소요법>을 출간해 화제에 올랐던 남산스님의 <인연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는 스님이 경험했던 갖가지 이야기를 묶은 산문집이다. 자신에 대한 참회는 물론 부조리한 사회와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솔직히 드러냈다. 하지만 이야기 끝엔 따스한 희망을 걸어 놓았다. 나눔과 사랑을 욕망으로부터 지키는 것, 마음의 부처를 지키고 이웃도 지키며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선과 악의 갈등을 겪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유임을 말한다. 이웃집 마음씨 좋은 아저씨와 이야기하는 듯한 친근한 느낌이 드는 책. <명상, 8천원>

## 내 꿈안에도 그대의 향기 있네 황다연 지음

### 세상곳곳에 부처님이 계신 까닭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저 느낌이고 믿음이란 다. 아무 말도 없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득한 사랑임을 안다. 세상에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길이도 있으니까. 에세이집 <내 꿈안에도 그대의 향기 있네>는 불교니, 부처님이니 하는 말은 별로 없다. 불교가 좋다고, 부처님 법이 위대하다고 애써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일상의 단편들을 일기 쓰듯이 썼다. 그러나 어느 곳 부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 가까이 어떤지도 느낄 수 있다. 저자의 뜻이 부처님 세계를 한층 생화시켜 채색했다. <지혜네, 8천원>

## 답사여행의 길잡이 12 문화유산답사회

### 충북지역 불교유적 꼼꼼히 소개



증문문화권의 핵심을 이루는 충북지역에는 생각보다 불교유적이 많다. 이 책은 우리의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의 열두 번째 권으로 이 지역의 다양한 불교 유적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우리나라 석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6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 봉황리의 마애불상군을 비롯해 진천의 용화사 석조보살입상, 충주·월악산 지역의 청룡사터, 제천·단양지역의 향산리 삼층석탑, 법주사 등 각 지역을 8개 코스로 나눠 불교유물 및 사찰들을 수록했다. 사진과 안내도를 넣어 답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돌베개, 1만원>



## IMF시대 종단의 화합과 영남불교의 발전, 가정의 화목과 경제난 극복 및 민족통일의 선연을 심는

# 팔공산 동화사 약사여래 100일 기도

극난 때마다 참다운 정기를 발현해온 민족의 영산 팔공산에 저울에도 오동꽃을 피운 봉황의 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대본찰 동화사에서는 '약사여래 100일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금번 100일 기도는 국가적 위기인 IMF시대를 맞이하여 도산과 대량실업 등의 사회불안 속에서도 가정이 화목하고 경제난이 극복되며, 민족의 통일세계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염원하고, 종단이 안정속에 화합하며, 지역불교가 하나된 가운데 새로운 발전으로 향하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동화사의 전대중 및 지역의 많은 불자들이 간절한 기원으로 함께하는 이 선연의 원력기도에 많은 불자님들의 불심어린 동참을 기원드립니다.

**약사여래 100일 원력기도 동참안내**

- \* 입제(기도 시작일) : 1998년 10월 27일
- \* 회향(기도 끝나는 날) : 1999년 2월 3일
- \* 기도 법사 : 동화사 性德 주지스님
- \* 기도 시간 : 매일 오전3시, 오전10시, 오후6시
- \* 장 소 : 동화사 통일대불전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주지 性德 합장